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 검증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A Study of Differences in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Adolescents in Crisi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 N구 지역의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들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인 경우, 부모와 동거 및 대화시간을 충분히 갖을수록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 수준을 향상시켜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위탁상담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adolescents in crisi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were 123 adolescents in crisis receiving educational counseling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d counseling center in U city. Statistical software R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 Scheffe test was used for the post hoc analysis. From the results, we see that the differences in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f adolescents in crisi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and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It was found that the more adolescents in crisis spend time together and talk with their carers, the higher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the growth of adolescents in crisis, it is important to help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by improving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 expressiv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counseling program that consider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crisis. We also notice that research and support measures on a policy-level for emotional support are required.

Keywords : Adolescents in Crisis, Family of Origin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 Study of Differenc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August 26,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September 23,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가정이 증가되고 있다[1]. 따라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위기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심각하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인구에서 추정된 위기위험군 인구는 약 77만 명이며 이중 2만 6천 명은 개입이 시급한 고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위기는 이 시기의 교육 기회들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 요인들에 노출되어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2].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달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인격 및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이 형성되므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3]. 반면 이혼으로 붕괴되는 가정에서 성장기의 청소년 자녀가 겪는 충격, 갈등, 정서적 혼란, 위축, 지지와 애정결핍 등의 상처는 도덕적 이탈의 근원이 된다[4]. 따라서 사회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 적절한 교육과 관리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지니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아분화 및 정서표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위기란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써 갑작스럽게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정서적 충격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5]. 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 제4항, 시행 2019. 3. 19)에는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 이탈청소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6, 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해 학교와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외부의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위기는 긍정적인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인으로의 삶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은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등하며, 판단미숙과 우발적인 언행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대부분의 위기청소년은 가정해체 위기에서 양육환경의 어려움과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8]. 따라서 심리·정서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자아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력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9]. 특히 원가족자아분화는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을 때 부적응 행동과 대인관계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퇴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삶을 시작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1]. 원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와 밀접히 연계되어있다[12]. 원가족자아분화란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인관계적 측면과 정서적 기능에서 지적기능이 분리된 정도인 심리내적 측면의 독립된 정도를 의미한다[13].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실과 김형균[14]의 연구결과 중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분화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학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탐색과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정서인지 분화 및 자아통합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분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원가족자아분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15].

이 의미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이 원가족자아분화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타인과 융합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16]. 특히 정서표현성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정서표현성의 경험에 따라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갈등해결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7].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적절하고 올바른 정서표현이 매우 중요하다[18]. 홍창희[19]는 정서표현성을 얼굴표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표현적이고 개방적이며 억제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김혜나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정서표현성은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소속기관 유형, 근무경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20]. 또한 진옥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과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21].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이 정서표현성에 중요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위기 경험을 예방하고 비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을 인지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내적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제언을 논의하였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U시 N구 지역의 경찰청 위탁상담센터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및 비밀보장, 설문참여에 대한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4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정확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12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간의 그룹 간 평균 차이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가족자아분화, 정서표현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항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조사도구의 요인으로는 '성별',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녀,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은 부모, 한 부모(부 또는 모), 조부모 등으로 분류하였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거의 없다, 하루에 10분정도, 하루에 30분정도, 하루에 1시간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은 청소년 문화센터, 사랑의 교실, Wee 가정형 센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3.2 원가족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 조사도구는 Bowen[22]

의 자아분화 척도를 한국인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제석봉[23]의 척도를 박정희[24]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단절 8문항, 가족퇴행 7문항, 가족투사 7문항의 세 하위요인과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4]. ‘*’ 표시를 한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요인분석에서 12번, 21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20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박정희[24]의 연구에서 원가족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가족퇴행 .832, 가족투사 .879, 정서적 단절 .8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자아분화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8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 수준인 .6 이상을 만족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3.3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 측정지표는 Gross와 John[25]이 개발한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인 22문항을 홍창희와 한규석[26]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로써 최은숙[27]의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 척도는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16문항이다[24].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요인분석에서 3번, 8번, 9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13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최은숙[27]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이 .94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Characteristics	Frequency(N)	Ratio(%)
Gender	① Male	36	29.3
	② Female	87	70.7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89.4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6.5
	③ grandparents	5	4.1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4.1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13.8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30.1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52.0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45.5
	② Classroom of Love	50	40.7
	③ Wee home-style center	17	13.8
Total		123	100.0

2.3.4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원가족자아분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 정서표현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도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Measure	Prior resear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Nominal measure	
Family of origin self-differentiation	22(1*~11*, 13*~19*, 21*)	Likert 5-point scale	Bowen (1976)
Emotional Expressiveness	16(3*, 8*, 9*)	Likert 7-point scale	J. J. Gross, O. P. John(1997) C. H. Hong, G. S. Han(2007) translation
Total number of questions	42		

(* : inverse questions)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위기청소년은 총123명이며 성별

은 남자36명(29.3%), 여자87명(70.7%)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은 '부모'가 110명(8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부모(부 또는 모)' 8명(6.5%), '조부모' 5명(4.1%)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상'이 64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30분정도' 37명(30.1%), '하루에 10분정도' 17명(13.8%), '거의 없다' 5명(4.1%) 순으로 분포되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은 '청소년 문화센터' 56명(45.5%), '사랑의 교실' 50명(40.7%), 'Wee 가정형 센터' 17명(13.8%)으로 파악되었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 자아분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 M=3.540, '남자' M=3.296로 원가족 자아분화의 차이($t=-1.084$)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부모(M=3.613)', '조부모(M=2.940)', '한 부모(부 또는 모)(M=1.819)' 순으로 원가족자아분화($F=17.43$)의 유의미한 정(+)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하루에 1시간이상'(M=3.898), '하루에 30분정도'(M=3.624), '하루에 10분정도'(M=2.197), '거의 없다'(M=1.150) 순으로 원가족자아분화($F=57.779$)의 정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청소년 문화센터(M=3.271)', '사랑의 교실(M=3.569)', 'Wee 가정형센터(M=3.826)'로 원가족자아분화($F=2.705$, $p<.0071$)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 분석결과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원가족자아분화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동거하는 보호자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t=-1.614$)는 '여자'의 경우 M=4.681, '남자'는 M=4.355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 따른 결과는 '부모(M=4.714)', '조부모(M=4.385)', '한 부모(부 또는 모)(M=2.942)' 순으로 유의미($F=20.320$)한 정(+)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하루에 1시간이상'(M=4.786), '하루에 30분정도'(M=4.680), '하루에 10분정도'(M=4.371), '거의 없다'(M=2.046)로 정서표현성($F=24.815$)의 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 별로는 '청소년 문화센터(M=4.484)', '사랑

Table 3. Differences in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Total N=123)

	Characteristics	N	Mean	SD	T / F	P-value	Scheffe
Gender	① Male	36	3.296	1.247	-1.084	0.284	0
	② Female	87	3.540	0.815			0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3.613	0.815	17.434	0.000	a***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1.819	1.123			b***
	③ grandparents	5	2.940	1.266			ab***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1.150	0.283	57.779	0.000	c***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2.197	0.936			b***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3.624	0.712			a***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3.898	0.461			a***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3.271	1.035	2.705	0.071	a
	② Classroom of Love	50	3.569	0.962			a
	③ Wee home-style center	17	3.826	0.494			a

*** $p<.001$, Scheffe's test: a>b

Table 4.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N=123)

	Characteristics	N	Mean	SD	T / F	P-value	Scheffe
Gender	① Male	36	4.355	1.115	-1.614	0.113	0
	② Female	87	4.681	0.741	-1.614	0.113	0
The type of carers living with	① Parents	110	4.714	0.656	20.320	0.000	a***
	② One parent (father or mother)	8	2.942	1.492	20.320	0.000	b***
	③ grandparents	5	4.385	1.347	20.320	0.000	a***
Average time spent in conversation with carers per day	① hardly any	5	2.046	0.661	24.815	0.000	b***
	② About 10 minutes a day	17	4.371	1.258	24.815	0.000	a***
	③ About 30 minutes a day	37	4.680	0.723	24.815	0.000	a***
	④ More than 1 hour per day	64	4.786	0.428	24.815	0.000	a***
Agencies entrusted with getting an education	① Youth Cultural Center	56	4.484	0.829	2.610	0.078	a
	② Classroom of Love	50	4.551	1.015	2.610	0.078	a
	③Wee home-style center	17	5.023	0.272	2.610	0.078	a

***p<.001, Scheffe's test: a>b

의 교실(M=4.551)', 'Wee 가정형 센터(M=5.023)'로 정서표현성(F=2.610, p<.0078)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분석 결과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정서표현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와 정서표현성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분석 결과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차이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유형이 가장 높으며 '조부모', '한 부모'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8]와 의미를 같이 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동거가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29]과는 상이한 결과로 이는 동거유형보다는 가족관계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거하는 보호자 유

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 원가족자아분화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손가정 조모의 자아분화 수준의 중요성 및 영향력[30]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는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서·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의 차이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충분히 경험할수록 원가족자아분화를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의미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아분화 수준과 관계가 깊다[32]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는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는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기청소년의 문제행동 증재 및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서와 사고의 균형을 위해 원가족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개인 및 부모·가족차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 관계 증진을 위한 증재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전문적

인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성은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 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따라 즉, 부모와 동거할수록 대화시간을 충분히 갖을수록 정서표현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가정이 결손가정에 비해 애정의 표현성, 의사소통 면에서 기능이 원활하다고 보고한 연구[33]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공감과 지지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선행연구[34]는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한편, 정서를 잘 표현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연구결과[35]와도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불합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부모에게 표현하는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 자녀 연구에 나타난 결과[36]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의 정서표현성 향상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의 연구결과[37]도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의 정서표현성은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서 보호자에 대해 세분화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유형과 '보호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충분할수록 정서표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측면에서 위기 청소년의 개인 내적요인(원가족자아분화, 정서표현성)은 내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서와 사고의 균형 및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건강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변인을 통한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정서표현, 대인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개인변인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상담적인 개입 방안으로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향상을 위해 동거하는 보호자 유형에 따른, 즉 양부모, 조부모, 한 부모들만을 위한 각 유형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및 '동거하는 보호자와 위기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SNS를 이용한 소통방법' 등의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배려하는 정책적 강화 방안이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U시 N구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원가족자아분화와 정서표현성의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Y. Lee, Y. K. Lee, H. R. Lee, H. J. Yoon, A study on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risis families and on welfare support measures, Research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pp.3-12, 2009.
- [2] B. W. Choi, "Personality Education and Humanities Therapy for Youth at Risk", *STUDIES IN HUMANITIES*, No.49, pp.511-538, Jun 2016.
- [3] H. J. Park, *The effect of family cultural environment and mathematical attitude on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 [4] Y. S. Park, Deviance behavior and school violence of Korean adolescents, Paju: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15.
- [5] Y. S. Kim, *The Effects of Integrated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of At-Risk Youth*, Ph.D dissertation, Seoul Venture Graduate University, 2020.
- [6] H. C. Kim, *Becoming an Adult of Crisis Youth, Focusing on the Self-Reliance of Adolescents Out of the Protection System*, Seoul: Hakjisa, 2013.
- [7] H. J. Hong, *The Analysis of the CYS-NET Intervention Process for the At-risk youth : Focused on the Ground Theory*,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e Department, 2020.
- [8] Y. H. Kim, Y. J. Choi, *Korean youth who they are*, Jungmin Publishing, Gyeonggi :Paju, 2017.
- [9] H. S. Kim,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13.
- [10] E. J. Kim,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adolescents on self-control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 Education, 2012.
- [11] Y. J.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problem behavior of the original famil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08.
- [12] Y. J. Hwang, J. M. Lee, A Basic Study on the Status and Situation of Crisis Youth. Research Report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pp.1-493, 2020.
- [13] Y. H. Mun, *The Influence of Mothers' Family-of-Origin Health and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Attitud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13.
- [14] J. S. Lee, H. G. Kim,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elf-Differentia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7, No.2, pp.159-177, May 2021.
DOI: <http://doi.org/10.29113/skpaer.2021.27.2.008>
- [15] H. S. Lee,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impact of self-respect on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ssociation*, Vol.13, No.1, pp.333-341,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33>
- [16] H. S. Kim, W. I.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ir Force Soldi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6, No.12, pp.377-399(23 pages), Dec. 2019.
- [17] J. N. Kim, *Effect of Adolesc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15.
- [18] H. R. Kim, S. S. Shim, "The Effect of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Stress in High School Golf Player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2, No.6, pp.491~501, 2013.
- [19] C. H. Hong,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Verification of the Interim Model of Emotional Expression*,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20] H. 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jobstress,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 [21] Q. YU, *The effect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and teacher's Emotional Expression on Chineses Left-behi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7
- [22] 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Vol.4, No.1, pp.2-90, 1976.
- [23] S. B. J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ctive Behavior of Self-Differenti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9.
- [24] J. H.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ifferentiation of Original Family Members, Marital Conflict, Marital Intimacy and Caregiving Parents Stress for Female Spouse*, Ph.D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0.
- [25] J. J. Gross, O. P. John, "Revealing feelings: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2, No.2, pp.435-448, 1997.
DOI : <http://dx.doi.org/10.1037/0022-3514.72.2.435>
- [26] C. H. Hong, G. S. Han,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1, No.4, pp.133-148, 2007.
DOI: <http://doi.org/10.21193/kispp.2007.21.4.008>
- [27] E. S.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ldiers' Ego-Identity and Ment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 [28] M. S. Jeong,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Adaptation of Single-Parent Family and Adolescents in Two-Parent Family", *Youth Culture Forum*, Vol.26, No.1, pp.191-228, 2011.
- [29] J. J. Chang, S. H. Shin,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6, No.3, pp.248-259, Sep. 2017.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3.248>
- [30] M. H. Kim, S. H. Kim, "The Perceived Self-Differentiation of Custodial Grandmoth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 No.3, pp.233-246, Sep. 2015.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5.9.3.233>
- [31] H. K.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level of 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2004.
- [32] I. J. Choi,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6, No.3, pp.611-628, 2007.
- [33] H. R. Ryu, *The Effects of the Broken Families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Juveni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anbian, China, A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06.

- [34] J. N. Kim, *Effects of Emotion Coaching Parents Education Have on Child Emotion Education Metho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2.
- [35] J. Y. Lee, Y. J. Jo,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Non-Disabled Children with Disabled Sibling",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53, No.4, pp.137-162(26 pages), Mar. 2019.
- [36] M. J. Kim, *A Qualitative Study of Psychological Adaptation Process of the Normal Sibling who has a Handicapped Sibl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37] S. H. Lee, S. M. Choi, "A Study on the Impact of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the Adolesc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5, pp.265-289, 2018.

송 경 미(Kyeng-my Song)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 융합콘텐츠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